

## 한국·미국·중국신문의 미중정상회담 보도 내용 분석

진 명 지\* · 박 경 숙\*\*

본 연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미중정상회담이 한반도 위기 문제와 직접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해당 나라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도되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 미국, 중국신문의 대표적인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로 삼았으며 분석 기간은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3일까지 미중정상회담 전후 일주일, 총 2주간의 신문, 107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총 보도량, 기사유형, 보도 프레임, 보도 태도이며 그 결과 조선일보는 58건(54.2%), 뉴욕타임스는 35건(32.7%), 인민일보는 14건(13.1%)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기사유형의 경우 세 신문사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44건(75.9%), 뉴욕타임스 21건(60%), 인민일보는 10건(71.4%)으로 총 75건(70.1%)이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다음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경우 사설(오피니언)의 기사가 각각 11건(19%), 8건(22.9%)으로 나타났다. 기획/연재(심층보도)의 보도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 2건(3.4%) 인민일보 2건

---

\* (주저자)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bestjmj27@naver.com)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pksuk@jejunu.ac.kr)

(14.3%)이었으며 뉴욕타임스는 6건(17.1%)이 보도 되었다. 보도 프레임으로는 뉴욕타임스와 인민일보 신문사 모두 동맹 프레임 기사가 각각 22건(62.9%), 7건(50%)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단순한 정상회담 일정이나 가십성 기사 등 기타 항목이 21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보도태도로는 조선일보의 경우 중립적 태도가 43건(74.1%)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태도가 10건(17.2%), 긍정적 태도 5건(8.6%)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부정적 태도가 19건(54.3%)로 가장 많았고 중립적 태도가 14건(40%), 긍정적 태도가 2건(5.7%)이었다. 인민일보의 경우 긍정적 태도와 중립적 태도가 각각 6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태도는 2건(14.2%)이었다.

**핵심어:** 미중정상회담, 뉴스프레임, 보도내용, 한국 언론, 중국 언론, 미국 언론

## I. 서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 후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북핵 문제 등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해 2월 ‘하노이 노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미국이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소강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적극적 대북 관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보이고 있다. 사실 지난 해 6월 한·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세 나라의 만남으로 한반도 내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만들었으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면서 다시 긴장 관계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첨단무기 한반도 반입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명시했다.<sup>1)</sup> 또한 미국은 북핵과 관련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북한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날선 비판을 했었기에 2017년 4월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결과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

---

1) 프레시안(2019), “대북제재 ‘유지’보다 ‘완화’가 강력한 이유”..<https://www.pressia.com/pages/articles/229271>(검색일: 2020년 4월 25일).

었다. 미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북한 미사일 개발과 북핵 문제에 대하여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 동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면, 한국의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외교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다(이승철, 2011).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압박과 보복에 큰 타격을 입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긴장감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한국 교역의 2대 강국이며 한국의 국가발전과 번영에 있어서 최대의 변수이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정상회담은 두 나라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은 한 나라의 외교관들이 행하는 실무외적인 수준을 넘어서 한 나라의 정상들이 상대국의 정상과 직접 만나 수행하는 최고급의 외교행위다. 이를 통하여 상대국 정상이 국내에서 어떤 정치적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지 또한 관료조직이 정상회담의 일정에 맞춰 양국가간의 주요한 현안을 정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설원태, 2012).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보도의 성격은 국내 수용자들을 의식한 ‘국내 보도’이면서도 상대국 수용자를 의식한 ‘국제 보도’라는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다(김성해·김경모, 2008).

---

2) 엠비엔뉴스(2017).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잡기 치열…미국 북핵 해결하라 강공”. <https://www.mbn.co.kr/news/world/3185855>(검색일: 2019년 12월 27일).

또한 두 나라 이상이 관련된 정상회담의 보도에서는 언어나 문화를 가로지르는 보도프레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설원태, 2012: 47).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배제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보도 프레임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조합하여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고의 틀 역할을 한다(이동훈·김원용, 2012). 그러므로 세 나라의 미중정상회담 관련 신문기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미중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각 나라의 시각과 입장,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상회담 보도는 언론사가 속한 국가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중요시되는 보도라 할 수 있겠고, 자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각 나라의 언론사들이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김성해·심영섭, 2010). 비록 2017년 4월 이뤄졌던 미중정상회담은 현재 세계의 정세 흐름 속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무역협약과 함께 원만한 관계 개선을 위한 첫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은 속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우 한국의 국방과 외교, 경제적인 부분 등 다방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해당 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미중정상회담 주요 논의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7)에서 2017년 4월 6일 미중정상회담을 앞

두고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당중안 군사 위 주석인 덩샤오핑을 통해 양국가간의 국교 수립이후 갈등과 협력 관계를 계속하여 반복해왔다고 한다. 특히 2013년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미중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 관계를 제기하면서 외교적 입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무역불균형 해소와 환율 조작국 지정, 북핵 문제, 사드배치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양자간의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의 <표 1>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요 현안과 양국가의 입장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미·중 갈등의 주요 현안과 양국가의 입장**

구분	예상 정상회담 내용	회담 후 향후 전망
<b>무역 불균형</b>	(미국)對美반덤핑/상계 관세부과 가능성 제기  (중국)시장경제지위 부여 요구	중국 미국이 서로 협의를 통해 무역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비시장경제(NME)' 지위 유지
<b>환율조작</b>	(미국) 중국환율조작국	한국과 대만에 대한

국가로 지정	지정 보류	환율관찰 대상국 유지 가능성 우려
對美투자	(미국) 對美 그린필드 투자 요구 (중국) 일대일로 협조 전제	중국과 미국이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사드 보복 지속여부	(미국) 對한국 사드보복 철회 요구 (중국) 한반도의 사드배치 철회 요구	사드배치 완화 기대 속 불확실성 상존
북핵 문제	(미국) 중국의 대북제재 적극적인 참여 요구 (중국) 북·중·미 3자 회담 제의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함께 중국의 기존 방침 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도 『이슈리포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에 관한 내용 참고 작성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통하여 중국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리아 미사일 공격’으로도 내비쳤으며 관세나 환율 등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북핵과 연관시켜 1대1 협상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중국 입

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양자택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sup>3)</sup>

결과적으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선언문 채택도 모두 생략이 된 채 마무리 되었다. 긍정적인 미중관계의 개선이 기대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의견만 같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며 국제적인 규범과 절차에 따라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시리아 내전, 북한 핵 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했으며 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그렇다보니 자칫 문제에 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오직 해법에만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이성우, 2017).

우리나라의 경우 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세밀한 분석과 외교정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

---

3) 연합뉴스(2017), “G7, 북한에 핵무기 포기하고, 추가도발자제 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1189451109?input=1195m>(검색일: 2020년 5월 2일).

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정상회담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미중정상회담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대다수가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반도의 입장과 대응 전략이라든지 정상회담 자체를 평가하고 시사점과 교훈을 짚어보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김양규 외 3인(2013)의 연구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추후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대북 독트린 4원칙의 확립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북 독트린 제1원칙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이며 제2원칙은 21세기의 새로운 생존변영을 위해서 북한이 그 전략으로 현재의 핵무력 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넘어선 병진론2.0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3원칙은 한의 비핵안보와 경제변영 체제에 상응하는 국제공진화를 제시하는 것이면 마지막으로 4원칙은 단계별 한반도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 및 한반도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

이원영(2018)의 연구에서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부시 행정부 시기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차이메리 카’로 불릴 만큼 협력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강압이 있었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중국에 대한 ‘재균형’을 추구했으며 ‘전략적 인내’를 통한 다자주의적을 내세우며 대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국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방어적 수용’이라는 범주 안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의 압박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북미 관계의 변화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동맹에도 심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타협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지나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고 미국의 동의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지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공고화,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딜레마 극복을 위한 과제임을 나타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연구 자체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연구들은 거의 정상회담 결과 분석(김규륜, 2014)과 북핵 해결 방안 및 과제(곽태환, 2005),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보도양상을 비교분석 연구(설원태, 2011)와 뉴스 기사 보도 프레임 연구(설원태, 2012)도 있었다.

설원태(2012)는 1948년 8월에서 2009년 8월까지 61년 동안 개최됐던 51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주제로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보도양상을 비교하였다. 이것은 한미 간 ‘비대칭성(asymmetry)’이 언론 보

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5개 항목인 보도량, 핵심 취재원, 기사유형, 보도주제, 상대국에 대한 보도논조를 통해 살펴 본 두 신문의 보도상의 차이점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비해 조선일보가 한미정상회담을 더욱 중요하게 다뤘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한미정상회담을 조선일보의 보도와 비교해봤을 때 그리 강한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두 언론사의 보도에서 상당 정도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성쇠의 관점에서 분석한 시각(차상철, 2005)과 한미관계를 언론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체성을 상실한 외교를 해왔다는 비판도 있다(이승철, 2011). 이처럼 대체로 한미관계는 한미동맹의 흥성과 쇠퇴, 그리고 북구 등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겠다(설원태, 2012).

이처럼 한미와의 관계를 다룬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연구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한창 독도 영유권 문제로 민감해 있을 시기에 이뤄졌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를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룬 연구(최희식, 2009)도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한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 연구(이기태, 2014),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 내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유지아, 2015)가 있었다. 나아가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연구(김두승, 2020)에서는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의 추진 현황과 이와 함께 독자적인 ‘전략 외교’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언어표현 기반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한미 신문의 사설을

비교한 연구(노보경·반현, 2019)도 있었다.

노보경·반현(2019)의 연구에서는 미국 주요 언론 사설과 4개와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사설 4개, 총 8개의 사설들을 갖고 평가어들을 포함한 언어적 표현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워싱턴 포스트, USA투데이의 사설들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외한 3개의 언론사 모두 회담의 결렬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책임으로 봤으며 부정적 평가어로 입장을 전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개의 신문 사설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언론사들은 모두 회담 결렬의 원인보다는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향후 대응과 입장에 초점을 두었으며 부정적인 평가어보다는 당부와 조언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담론 소비에 있어 양국의 언론들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평가어를 선호한다는 것과 기대와 당부를 전달할 때는 평가어보다는 보조 용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다룬 연구들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연구들로는 대북정책의 성과와 과제, 북한의 비핵화 해법,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보도 분석과 관련한 연구로 손영준·홍주현(2019)의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연구가 있었다. 한국의 진보, 보수 매체가 한반도 핵 위기 사태를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 2018년 4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

한겨레와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비교 분석했다. 진보 보수 신문은 한반도 핵 위기와 관련해 각각 정치적 진영 프레임과 논리를 제시했다. 진보는 북한의 자위용 핵 능력 완성 의지와 미국의 핵 보유 억제 정책이 충돌했기에 핵 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으며, 보수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의 기만전술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핵위기 해법에 대해 진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체제보장조치를 맞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수는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진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조정하는 ‘선의의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보수 신문은 기존의 한미동맹 틀을 복구해 미국과 정책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진보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는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보수는 비핵화 이후에도 본질적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진보는 또 북미 두 나라가 새로운 평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보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야 북미 간 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태도였으나 진보 보수 매체 내에서는 거의 모든 핵 관련 이슈에서 프레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 언론은 한반도 핵 위기 국면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정파적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보도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연구였다.

### 3. 뉴스 프레임 이론 연구

프레임 개념은 고프만(Erving Goffman, 1974)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는데 프레임이 개인이나 집단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언론분야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ryant, 2004).

기틀린(Gitlin, 1980)의 따르면 뉴스 미디어의 프레임을 인지하고 해독과 재현, 선택, 강조 등을 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언론인들의 관습적인 담론으로 하나의 구성과 틀이 생겨난다.

엔트만(Entman, 1993)은 뉴스 프레임 개념 이론화를 다음과 같이 현실에서 특정한 몇 가지 관점이 선택되고 텍스트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유의미해지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프레임은 언론매체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해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수용자에게 설명하고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거나 무시하는 성향을 가진다. 게다가 프레임이 현실의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평가까지 내린 뒤 그 문제에 대한 처방과 해결 가능성을 제안하는 기능을 가지기에 뉴스규명을 위한 유용한 틀이라고 볼 수 있겠다(양승현, 2012).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언론사가 갖고 있는 보도방향, 편집방향, 언론사의 정치적인 이념과 경제적인 여건, 세계 이데올로기적인 체계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틀 아래에서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Shoemaker, 1996). 특히 신문기사 내에 존재하는 프레임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사 설정의 방향과 그 프레임에 따라서 기사

성격은 물론 영향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미디어 프레임은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도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적인 합의체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뉴스프레임은 이슈가 되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속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크게 생산자 차원에서의 뉴스에 반영된 해석적 프레임 연구와 수용자 차원의 인지적 프레임 연구로 대별된다(이서현, 2013).

터크만(Tuchman, 1994)은 뉴스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이므로 이에 따라 프레임은 즉, 미디어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자 과정이고 현실을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의미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갠슨과 모딜리아니(Gamson, W·Modigliani, 1989)의 의하면 미디어 분석에 있어서 과거의 연구자들이 ‘프레임 장치(framing device)’를 통해 프레임을 분석할 수 있다고 했으며 반고프(Van Gorp, 2007)는 개별적인 기사의 제목과 도입부를 분석할 수 있고 탕카드(Tankard, 2001)는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 리드 등을 분석하여 뉴스프레임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임 연구는 크게 귀납적, 연역적 연구로 나뉘 수가 있는데 연역적 방법의 프레임 분석은 이전에 미리 만들어진 프레임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에 매체 간의 프레임 차이를 살피는 데도 유용하다(Semetko·Valienburg, 2000; 97; 설원택, 2012; 45).

특히 정상회담간의 뉴스 보도 프레임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크다. 자국의 언론은 소속된 자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이를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국가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정부와 언론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성해·심영섭, 2011). 언론은 각 나라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국제적 사건을 보도한다. 또한 국가의 외교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이를 보도를 해나가는 하나의 시각, 틀로 설정하고 있다(윤영철, 1997).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로 설정하였다.

- 1) 각 신문사의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보도량은 어떠한가?
- 2) 각 신문사의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유형은 어떠한가?
- 3) 각 신문사의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프레임은 어떠한가?
- 4) 각 신문사의 미중정상회담 관련 기사의 보도 태도는 어떠한가?

각 신문에서 보도된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사의 보도량과 기사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보도 프레임 유형과 한·미·중 신문들의 보도프레임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각 신문들이 어떠한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

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보도태도의 경우 각 나라의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도 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자신의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 2. 연구방법

### 1) 기사수집 및 분석기간

연구대상은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조선일보의 경우 국내 언론사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국내 최다 유료 부수를 갖고 있다(2018년 기준 119만3971).<sup>4)</sup> 미국의 뉴욕타임스 역시 1851년 창간되어 대표적인 정론지로 인정받고 있다.<sup>5)</sup> 또한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으로 베이징에서 발행되고 있다.<sup>6)</sup>

기사 수집은 한국의 조선일보, 미국의 뉴욕타임스, 중국의 인민

---

4) 신문 부수 공식 인증기관 한국 ABC협회에 따르면 2018년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는 119만3971부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유일하게 유료 부수 100만 부를 넘긴 것이다.

5) 2019년 11월 7일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유료 독자가 400만 명이 됐다고 밝혔으며 종이신문 구독까지 포함한 전체 유료독자는 약 490만 명이라고 전했다.

6) 인민일보의 일일 평균 발행부수는 300만 부 가량으로 추산되며 2012년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중국의 언론제도 및 산업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높은 수준의 취재 및 편집 역량과 특히 '평론'과 '이론'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일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석기간 설정을 한 후 각 나라의 언어로 '정상회담' 키워드를 입력하여 기사 검색을 하였다. 이 중에서 미중정상회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사를 제외 하고 분석기사 자료를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2017년 3월 30일부터 2017년 4월 13일까지로 미중정상회담 기간을 포함한 총 2주간의 신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 2주간의 기간으로 좁혀서 설정한 이유는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정상회담과 관련된 심도 깊은 기사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과 그 이후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코딩지 작성과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 1인과 함께 실시하였다.

## 2) 분석유목

본 연구는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분석유목을 설정하였다.

### (1) 기사유형

수집된 각 해당 나라 신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획·연재(심층보도), 사설(오피니언), 인터뷰·대담·질의응답 기사유형이 포함되었다.

### (2) 프레임 분류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인 설원태 (2012)의 연구에서 쓰인 보도 프레임을 갖고 재수정의 작업을 거친 후 진행했으며 추가적으로 이희영·김정기(2016)의 연구에서 도출한 15개 유형의 뉴스프레임도 함께 참고하여 프레임을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미중정상회담 기사의 보도프레임 유목 및 조작적 정의

보도 프레임 분류	정의
동맹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여 이에 대해 서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협력하고자 동맹을 강조하는 기사
지원	군사적 및 무역 등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과 논의가 있는 기사
자주	다른 나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기사
평등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각 나라가 평등한 수준에 있음을 강조하는 기사
비난·갈등	미국 혹은 중국의 한 정상이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
국익대립	정상회담에서 양국가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발생한 경우와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보도한 기사

<b>단순정보전달</b>	정상회담에 대한 단순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 및 귀국 등의 일정을 담은 기사, 혹은 가십성 기사
---------------	---

### (3) 보도 태도

미중정상회담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각 나라 언론사의 기사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논조, 중립적 논조, 부정적 논조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논조란 각 나라의 입장에서 보도를 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자신의 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친한, 친미, 친중)을 말하다. 부정적 논조란 자신의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반한, 반미, 반중)으로 보는 것이고 중립적 논조는 긍정 또는 부정 논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이들 논조가 잘 조화된 논조이다.

## IV. 결과

### 1. 보도량 및 기사유형 분석결과

분석 대상인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가 전체 분석기간 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중정상회담을 보도한 횟수

를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는 58건(54.2%), 뉴욕타임스는 35건(32.7%), 인민일보는 14건(13.1%)으로 조선일보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 기사 총 보도 횟수**

분석 신문			전체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58(54.2)	35(32.7)	14(13.1)	100(100.0)

세 신문사의 기사유형을 비교 했을 때 역시 각 언론사 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7)</sup> 세 신문사 모두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44건(75.9%), 뉴욕타임스 21건(60%), 인민일보는 10건(71.4%)으로 총 75건(70.1%)이 스트레이트 기사였다. 다음으로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경우 사설(오피니언)의 기사가 많았는데 조선일보는 11건(19%), 뉴욕타임스는 8건(22.9%)이었다. 기획/연재(심층보도)의 보도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 2건(3.4%) 인민일보 2건(14.3%)이었으며 뉴욕타임스는 6건(17.1%)이 보도 되었다.

**<표 4> 세 신문의 기사유형 비교**

구분	분석 신문	전체
----	-------	----

7) 카이제곱(x<sup>2</sup>)검정 결과, 유의확률 수치는 .012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스트레이트	44(75.9)	21(60)	10(71.4)	75(70.1)
기획/연재 (심층보도)	2(3.4)	6(17.1)	2(14.3)	10(9.3)
사설 (오피니언)	11(19)	8(22.9)	1(7.15)	19(17.8)
인터뷰·좌담· 대담·질의응답	1(1.7)	0(0.00)	1(7.15)	3(2.8)
전체	58(100.0)	35(100.0)	14(100.0)	107(100.0)

## 2. 미중정상회담 보도기사 프레임 분석결과

세 신문사의 보도프레임을 비교 했을 때 각 언론사 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sup>8)</sup> 그리고 세 신문사의 보도프레임의 비교해보면 뉴욕타임스와 인민일보 신문사 모두 북핵문제 해결이나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자 동맹 관계를 내비치는 기사가 각각 22건(62.9%), 7건(50%)로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단순한 정상회담 일정이나 출국 상황 등을 보도하는 기사나 각 나라 대통령의 부인의 의상이나 정상회담 장소인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 'MaraLago'에 대한 소개 기사 등 단순 정보전달 항목이 21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선일보의 경우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동맹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3

8) 카이제곱(x<sup>2</sup>)검정 결과, 유의확률 수치는 .000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22.4%)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보였다. 나아가 조선일보의 경우 동맹, 지원, 자주, 평등, 비난·갈등, 국익대립, 단순 정보전달 프레임 항목 모두에 기사가 분포해 있었지만 특히 인민일보의 경우 동맹, 평등, 단순 정보전달 총 3개의 항목에만 기사가 분포해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유보적인 것에 대해 다소 비판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는 기사를 8건(22.9%)으로 두 번째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표 5> 세 신문의 보도프레임 빈도 비교

구분	분석신문			전체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동맹	13(22.4)	22(62.9)	7(50.0)	42(39.3)
지원	2(3.4)	2(5.7)	0(0.00)	4(3.7)
자주	6(10.3)	0(0.00)	0(0.00)	6(5.6)
평등	2(3.4)	1(2.9)	1(7.1)	4(3.7)
비난·갈등	6(10.3)	8(22.9)	0(0.00)	14(13.1)
국익대립	8(13.8)	0(0.00)	0(0.00)	8(7.5)
단순 정보전달	21(36.2)	2(5.8)	6(42.9)	29(27.1)
전체	58(100.0)	35(100.0)	14(100.0)	107(100.0)

### 3. 기사보도태도 분석결과

세 신문의 보도태도의 경우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sup>9)</sup> 조선일

의 경우 중립적 태도가 43건(74.1%)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태도가 10건(17.2%)으로 긍정적 태도 5건(8.6%)보다 많았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부정적 태도가 19건(54.3%)로 가장 많았고 중립적 태도가 14건(40%), 긍정적 태도가 2건(5.7%)이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의 첫 출범 후 실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크게 얻은 것이 없이 싱겁게 끝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었보였다. 인민일보의 경우 긍정적 태도와 중립적 태도가 각각 6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 태도는 2건(14.2%)이었다. 전체기사 중 중립적 보도 태도의 기사가 6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정적 보도 태도 기사가 29건(27.2%)을 차지했으며 긍정적 보도 태도는 13건(12.1%)에 그쳤다.

**<표 6> 세 신문의 보도태도 비교**

구분	분석신문			전체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긍정적	5(8.6)	2(5.7)	6(42.9)	13(12.1)
중립적	43(74.1)	14(40)	6(42.9)	63(60.7)
부정적	10(17.2)	19(54.3)	2(14.2)	29(27.2)
전체	58(100.0)	35(100.0)	14(100.0)	107(100.0)

9) 카이제곱(x<sup>2</sup>)검정 결과, 유의확률 수치는 .000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기사의 보도량은 조선일보의 경우 58건(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타임스는 35건(32.7%), 인민일보는 14건(13.1%)으로 나타났다. 비록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와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중개자 역할로서의 미국에 대한 기대 등 한국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후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각 정당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려 하는지 등을 보도했는데 이것은 바로 한 달여 뒤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 대한 보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뤄진 정상회담이라는 점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 북핵 문제 해결에 본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성과를 이룰 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부터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주제로 입장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다.

두 번째로 기사유형에 있어서 조선일보, 뉴욕타임스, 인민일보 모두 스트레이트 유형의 기사가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44건(75.9%), 뉴욕타임스는 21건(60%), 인민일보는 10건(71.4%)으로 총 75건(70.1%)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설(오피니언) 기사 유형의 기사가 많았는데 조선일보는 11건(19%), 뉴욕타임스는 8건(22.9%)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기사유형의

형태보다는 주관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정상회담 개최와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기사 프레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정상회담 일정과 대통령 부인이 의상을 소개하는 가십성 기사 등 단순 정보전달 항목이 21건(3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맹 프레임 기사가 13건(22.4%)을 차지했다. 이점은 아무래도 한국이 참석하지 않은 정상회담인 만큼 특정한 의견 표현, 심도 있는 분석 보다는 정보 전달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양 국가의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고수하고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가 다소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겠다. 뉴욕타임스와 인민일보의 경우 모두 동맹 프레임 기사가 각각 22건(62.9%), 7건(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뉴욕타임스가 비난·갈등 프레임이 8건(22.9%), 인민일보는 단순 정보전달 항목이 6건(42.9%)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6일 만찬자리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결국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 된 점을 비판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각 신문사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태도가 43건(74.1%)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을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반면 뉴욕타임스의 경우 19건(54.3%)이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도 트럼프의 다소 지나친 태도로 인해 중국은 물론 국제 평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인민일보는 긍정과 중립적인 입장이 각각 6건(42.9%)으로 같았다. 중국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가 두 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정당지 성격이 강한 인민일보의 특성이 영향을 미쳐 특별한 분석이라든지 필자의 주관적인 성격이 짙은 기사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세 나라 모두 지금의 국제적 상황에서 서로의 협력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정상회담 전과 후의 기사가 다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보도 되는 내용을 봤을 때 정상회담 전 한국은 단순 정보전달, 가십성 기사가 두드러졌으며 후에는 양국가의 태도와 한국의 각 정치인들이 보는 평가 등의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자체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이었지만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2건 밖에 되지 않았고 중립적, 부정적 보도 태도의 기사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쉽게도 인민일보의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홍콩강신문, 연변일보 등과의 추가 비교가 이뤄져야 보다 정확한 중국 언론사의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면의 구성 및 배치에 대한 중요성이 큰 만큼 위와 같은 한계점을 추후 후속 연구로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규륜(2014),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김두승.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일 정상회담 전망", 『北韓』, 제 20권 1호(통권577호), 42-49쪽.
- 김성해·김경모(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언론: 동아시아지역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한-중-일 언론의 보도비교”, 『언론과 학연구』, 제10권 1호, 77-123쪽.
- 김성해·심영섭(2010), 『국제뉴스의 빈곤과 국가의 위기』,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양규·이동률·전재성 외(2013),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 대 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EAI논평』, 제29호, 1-6쪽.
- 김택환·강만석·송종길 외(2012), 『중국의 언론제도 및 산업현황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곽태환(2005).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 핵 6자 회담 전망”, 『정책 과학연구』, 제15권 1호, 45-65쪽.
- 노보경·반현(2019), “언어표현 기반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미 신문사설의 비교”, 『문화기술의융합』, 제5권 3호, 125-130쪽.
- 설원태(2011), “역대 한미정상회담 보도양상 비교분석 : 수치로 드러난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비대칭적 보도”, 한국언론학회 201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11년 4월 22 일).
- 설원태(2012), “한미정상회담과 보도프레임 비교연구”, 『미디어젠

- 더&문화』, 제21권, 41-72쪽.
- 손영준·홍주현(2019),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한겨레·조선·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22권 3호, 『정치정보연구』, 175-210쪽.
- 양승현(2011), “한국 저널리즘의 뉴스프레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엠비엔뉴스(2017),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잡기 치열…미국 북핵 해결하라 강공”, <https://www.mbn.co.kr/news/world/3185855>(검색일: 2019년 12월 27일).
- 연합뉴스(2017), “G7, 북한에 핵무기 포기하고, 추가도발자제 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1189451109?input=1195m> (검색일: 2020년 5월 2일).
- 유지아(2016),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제53권, 265-302쪽.
- 윤영철 (1997),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언론: 남북한 신문의 보도 시각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회』, 서울: 나눔.
- 이기태(2014),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제40권, 『현대일본학회』, 269-295쪽.
- 이동훈·김원용(2012), “신문의 보도프레임 형성과 뉴스제작과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4호, 99-106쪽.
- 이서현(2013),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관련 지역 일간지의 뉴스프레임 연구”, 제63권 3호, 『한국언론정보학보』, 26-52

쪽.

- 이성우(2017),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황 전망”, 『JPI Research Series』, 제40권, 107-110쪽.
- 이승철(2011), 『한국외교24시: YS에서 MB까지 외교현장 리포트』. 서울: 부키.
- 이원영(2018),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제18권 4호, 『국가안보와 전략』, 117-159쪽.
- 이희영·김정기(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한국언론학보』, 제60권 4호, 7-38쪽.
- 차상철(2004), 『한미동맹 50년』, 서울: 생각의 나무.
- 최희식(2009), “한일회담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한국 외교문서의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국가전략』, 제15권 5호, 117-138쪽.
- 프레스리안(2019), “대북제재 ‘유지’보다 ‘완화’가 강력한 이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9271>(검색일: 2020년 4월 25일).
- 현대경제연구원(2017),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이슈리포트』, 제17권 7호, 1-9쪽.

Entman, R.(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 51-58

- Bryant, J. and D. Miron(2004), "Theory and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4), pp. 662-704
- Gamson, W. and A. Modigliani(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pp. 1-37
- Goffman, E.(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metko, H. A. and P. M. Valkenburg(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pp. 93-10
- Shoemaker, P. J. and S. D. Reese(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york: Longman
- Tankard Jr, J. W.(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Framing public life*, ed. S. D. Reese, O. H. Gandy Jr., and A. E. Grant, London: Routledge, pp111-121.
- Tuchman, G. (1994),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york: Free Press

Baldwin, V. G.(2007), “The Constructivist Approach to Framing – Bringing Culture Back”,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pp. 60-78

<Abstract>

**Analysis on the U.S.-China Summit coverage of Korea,  
U.S, and China Newspaper**

**Jin, Myeongji · Park, kyongsuk**

This study wanted to analyze how the U.S.-China summit, which was hel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inauguration of U.S. President Trump, is an important issue for South Korea, which is in a direct position to deal with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the U.S.-China summit is being reported in the media in each country. The analysis targets were the Chosun Ilbo, the New York Times, and the People's Daily, and the analysis period was one week before and after the U.S.-China summit from March 30, 2017 to April 13, 2017, a total of two weeks of newspapers and 107 article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news reports, type of articles, news frames, and attitude, and as a result, the Chosun Ilbo reported 58 cases (54.2%), the New York Times 35 cases (32.7%), and the People's Daily 14 cases (13.1%) with the largest number of reports. In the case of type of articles, all three newspapers had the largest number of straight articles, with 44 cases (75.9 percent), 21 cases (60 percent) in the New York Times, and 10 cases (71.4 percent) in the People's Daily, with a total of 75 cases (70.1 percent) being straight articles. In the case of the next Chosun Ilbo and

the New York Times, 11 (19%) and 8 (22.9%) articles were reported by the editorial (Opinion),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press coverage of the planned/announced (in-depth coverage), two Chosun Ilbo (3.4%) and two People's Daily (14.3%) were reported, while six New York Times (17.1%) were reported. The New York Times and the People's Daily newspaper ha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on alliance frames, with 22 (62.9 percent) and 7 (50 percent), respectively, while the Chosun Ilbo had the largest number of other items (36.2 percent) such as simple summit schedules and gossip articles. Finally, the Chosun Ilbo had the most neutral attitude with 43 cases (74.1 percent), followed by 10 negative attitudes (17.2 percent) and 5 positive attitudes (8.6 percent). In the New York Times, 19 cases (54.3%) were negative attitudes, 14 cases (40%) were neutral attitudes and 2 cases (5.7%) were positive attitudes. In the case of the People's Daily, positive attitudes and neutral attitudes accounted for six cases (42.9 percent), respectively, while negative attitudes were two cases (14.2 percent).

**Keyword: U.S.-China summit, News frame, News Agenda, Korea Media, U.S. Media, China Media**